

### 개장 13년, 위기의 광양컨부두

# 더딘 성장세, 국내 2위 항만 위태

광양항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1998년 동북아 10대 국제물류항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건설됐지만 날로 증가하는 일반 부두 물동량과 달리, 컨테이너 물동량 부족에 따른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1998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의 중심'내걸고 개항=광양항은 지난 1998년 7월 이후 올해로 개장 12년을 넘었다. 당시만 해도 광양항은 수출입 화물의 적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산항과 함께 정부의 '투포트(Two-Port)' 핵심 항만으로 탄생했다. 아시아와 북미·유럽을 연결하는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 물류거점항만으로 키우기로 한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듯 물동량도 지난 1998년(3만3768TEU) 개항 이후 2002년 108만3333TEU를 달성한데 이어 ▲2004년 132만1865TEU ▲2006년 175만5813TEU ▲2009년 181만438TEU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209만 TEU를 달성, '동북아 경제 중심항'으

## 10월 물동량 지난해보다 9.4%나 감소 수도권·해외 포트 세일 총력 기울여야

로 발돋움하는데 한발짝 다가섰다는 기대감도 컸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전체 물동량의 경우 올 1~9월까지 1억7082만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고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물동량은 전년도(2억1651만t)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인천항에도 밀릴까 우려=하지만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성장세는 더디기만 하다.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개발 당시 추정량보다 훨씬 못 미치면서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2006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실제 하역능력(388만TEU)에 45.3% 수준에 불과했고 2007년 31.4%, 2008년 33%, 2009년 33%, 2010년 38.1% 등에 머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하역 능력의 31.4~45.3%에 불과한 처리 능력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급기야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를 인천항에 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6만3000TEU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적 화물만 작년 같은 달보다 12.4% 늘어났을 뿐 수입 화물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4%, 수출 화물은 11.8% 각각 감소하는 등 수출·입 화물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인천항에도 밀리는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항'은 커녕, 국내 2위 항만으로서의 위상도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높아만 가고 있다.

10월 인천항의 물동량은 17만TEU로, 광양항을 앞섰다.

2011년 완공 예정이던 '3-2 컨부두'(4개 선석·137만TEU)의 착공도 지연되는데다, 중국항만의 급성장도 국내 항만의 우수축소 개발, 지역 물

동량 창출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화물 유치, 중국 항만 틈새 시장 노려야=순천대 김명수 교수는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화물을 유치하는데 훨씬 유리해졌다"면서 "부산항으로 가는 수도권 화물 유치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광양 고속도로(117.8km)가 개통되면서 연간 515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 등 해외 포트 세일에 전력을 기울여 물동량 확대를 위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중국 천진·상해 등에서 넘쳐나는 물동량을 가져오기 위한 틈새 시장을 개척해 한적 화물을 유치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 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일반 부두의 체선을 완화하는 확장 공사 이외에 해외 포트 세일 및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광양항이 국제 물류 허브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흥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빠 움직여야 할 광양컨테이너 부두의 16개 갠트리 크레인. 최근 물동량이 줄면서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광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37개 사업 예산증액 부탁드립니다”

### 국회 찾은 강운태시장 지역의원들에 건의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 지역 의원들을 만나 시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고예산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2012 국비지원 요청사업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박주선 의원 등 지역의원 8명을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37건·1조7400억 상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50억원),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

원 설립(120억원), 광주연구개발 특구 육성(340억원), 광주 폐기물시설 설치(100억원), 광주~안동 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퇴행성 관절 전

문병원 건립(105억원) 등 필요한 사업비의 국고 편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116억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65억원), 광주 총인처리시설 설치(100억원),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50억원) 등 37개 사업비를 국비에 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급한 사업들로 인해 국비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은 시의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들은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정문관으로 자리를 옮겨 '2009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총장로 문화적 매력 살려 세계인과 소통

### 광주·전남 언론포럼 2011년 11월 17일 시민대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세계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거점 공간인 총장로에 공간 방문자들의 참여형 콘텐츠 보완과 함께 문화 장르별로 세분화된 문화생태도시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또한, 대규모 축제 개발과 대규모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다양한 소규모 마을 축제를 통해 광주시민 일상의 예술적 고양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관으로 17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 홀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세계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 대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오장근 성산 현대 교수는 '광주 총장로를 중심으로...공간 디자인을 향한 인문학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거점 공간인 총장로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에 잠재된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기억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

해서는 공간 방문자들의 참여형 콘텐츠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들 콘텐츠는 공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적(미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 분야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의여대 문예창작학과 강형철(시인)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문화생태지도의 작성 사업"이라며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주요작품과 작가를 정리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도를 완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문화생태지도는 문화의 영역을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 등 장르별로 세분화해 작성되

### 계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시민 대토론회



고전문은 물론 현대의 작품을 아우른 총체적인 지도가 완성된다면 여러 가지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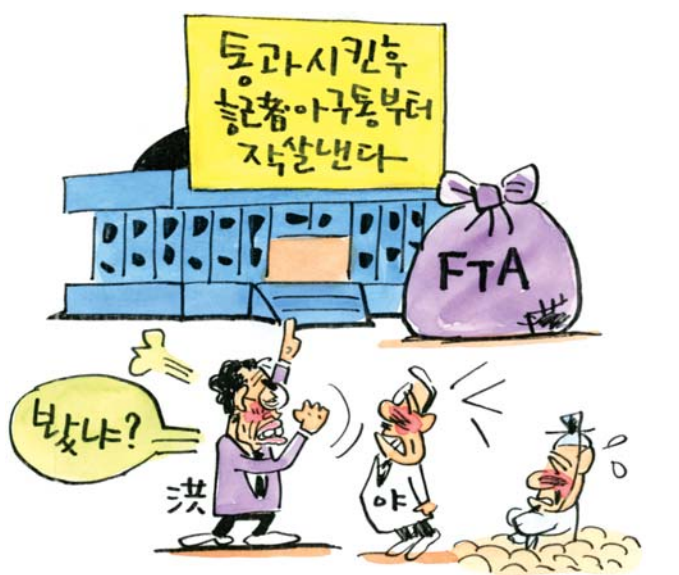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일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자발적 문화창조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일상이 예술적 고양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어떤 대규모 축제의 개발 또는 대규모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서 광주시민과 세계의 소통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윤성진 겸임교수는 "광주에서 일상적 문화화

## 빛의만평

- 김중두



정치수준 한번 알만하다

#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 외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아지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 : 상열하(上熱下寒) : 上實下虛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혈,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경희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냉면지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화정동 주택은행추신회관

← 송정리 | 돌고개 →

경희한의원

중양병원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패밀러센터가)